

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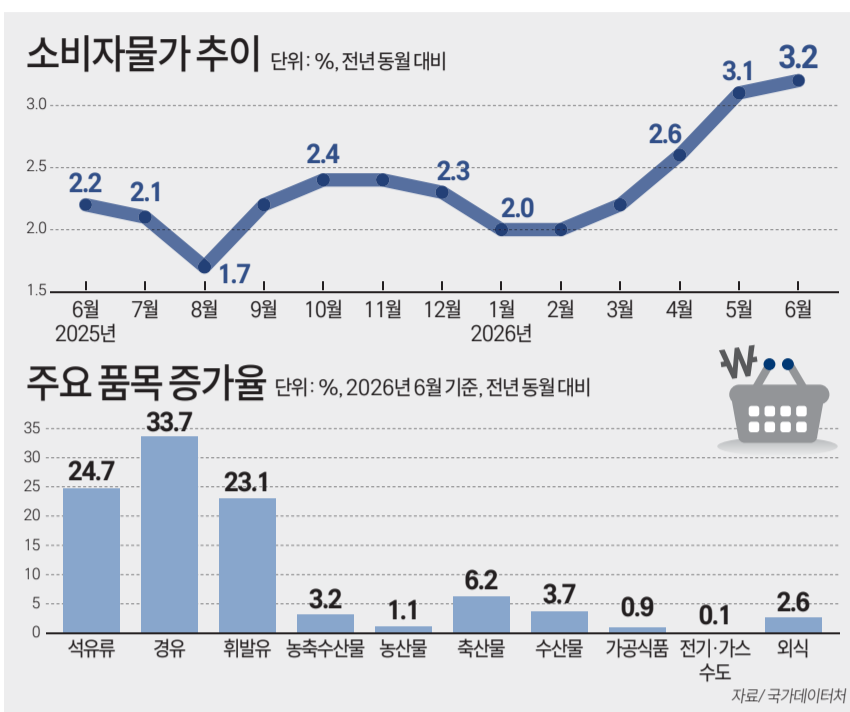
유가·환율 요동... 근원물가 고착... 금리인상 가능성 커져

전월 대비 물가 상승폭 커져
신현송 총재, 적극대응 시사
16일 금통위 회의 이목집중

6월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이뤄질 지 좀 더 미뤄질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의 물가와 경기 흐름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위원 7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명은 0.25%p 인상을 주장했다. 6월 물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만큼 인상을 확정할 새로운 충격은 아니지만, 인상 필요성을 악화하는 지표도 아니라는 평가다.

신현송 총재는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에도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4.7% 올라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5월 2.2%에서 6월 3.2%로 확대됐다. 농산물 가격은 0.8% 하락에서 1.1% 상승으로 전환했고, 축산물 가격도 6.2% 올랐다.

다만 5월보다 6월 물가 상승폭이 커진 원인을 석유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 포인트(p) 높아지는 과정에서 근원상품과 농축수산물이 각각 0.07%p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서비스는 0.12%p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

다. 석유류는 높은 오염세를 지속해 전체 물가 수준을 끌어 올렸다.

근원물가 내부에서도 흐름이 엇갈렸다. 국제항공료와 승용차 임차료 등이 낮아지면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5월 2.8%에서 6월 2.6%로 둔화했다. 개인서비스도 3.7%에서 3.4%로 낮아졌다.

반면 내구재 가격 상승률은 2.4%에서 3.1%로 확대됐다. 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약해졌지만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서 근원물가는 2.5%에서 더 내려가지 못했다.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높아진 비용이 상품 가격에 추가로 전가되는지는 향후 물가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한은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가 고점에서 하락한 데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반영될 수 있어서다.

6월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9.5달러로 5월 103.2달러보다 크게 낮아졌다. 다만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91원에서 1528원으로 올랐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4.7원으로 2000원대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예상된다.

한은은 비용 충격의 전이와 수요 압력 확대로 근원물가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치호 한은 부총재보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기 측면에서는 기록적인 수출 호조가 한은의 성장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70.9% 급증한 1022억5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월간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은 199.5% 늘어난 448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세가 반도체에 집중된 만큼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30개월새 가장 큰 오름세... 컴퓨터 가격 22% '썰렁'

중동발 석유류 가격상승 영향
공업제품·농축수산물 상승폭 커

국내 물가가 30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석유류 가격이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2% 올랐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1월과 2월 각각 2.0%에 머물다가 중동전 발발 이후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3월 2.2%, 4월 2.6%, 5월 3.1%에 이어 6월 3.2%까지 뛰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었다. 올해 6월 수치는 2023년 12월(3.2%)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동발 충격의 중심에 선 석유류

의 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24.7% 치솟았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래로 3년11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휘발유(23.1%)와 경유(33.7%), 등유(23.1%) 값이 모두 급등했다.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공업제품(4.4%) 물가도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른바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상승에 제조원가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의 영향을 받은 컴퓨터 가격이 22.2%나 뛰었다.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와 같은 수준인 3.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앞서 5월에는 2.2%였다.

특히 축산물(6.2%)과 수산물(3.7%)이 크게 올랐다. 조기 12.0%, 국산소고기 7.5%, 수입소고기 6.8%, 돼지고기 4.5% 등이다. 농산물(1.1%)과 가공식품(0.9%)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파(37.1%)와 쌀(11.7%), 달걀(10.3%) 값은 급등했다.

서비스(2.6%) 가격도 상승했다. 공공서비스(1.6%)에 비해 개인서비스(3.4%)에서 많이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6%, 외식 제의 서비스는 3.9% 뛰었다. 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국제항공료(28.2%), 보험서비스료(13.4%), 해외단체여행비(24.3%), 자동차수리비(5.5%)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의 이무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최고가격제에 변동이 없어 4월과 5월 상승 폭이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27일에 최고가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7월)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2.5% 상승했다. 3월(2.2%)과 4월(2.2%)에 2%대 초반에 머물다 5월(2.5%)부터 2%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다.

가계의 구입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2.3%, 식품 외 품목 가격은 4.1% 올랐다. 신선식품(0.4%)도 소폭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한화오션, ‘KDDX 설계·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르면 내달 말 최종계약 전망
해군 전력화 사업 본궤도 올라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2년 넘게 표류한 KDDX 사업이 본계약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서 해군 전력화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전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방사청은 지난 3월 입찰공고 이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지난달 11일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잠정 선정했으며, 약 3주 만에 최종 확정했다.

당시 양사의 점수 차는 0.5867점에 불과했다.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은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된 1.2점의 보안 감점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KDDX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점이 적용됐다. 이후 감점 적용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방사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한화오션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최종 확정됐다.

KDDX는 7000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해군의 핵심 방산 프로젝트다. ‘국산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차세대 함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 규모다. 방사청은 상세설계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8년 말부터 후속함 5척 발주를 시작해 2036년까지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통합전기추진체계와 통합마

스트 등 첨단 핵심 기술과 스마트 함정 설계 역량을 KDDX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달 중순부터 한화오션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해 이르면 오는 8월 말 최종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과 기간은 협상을 거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본계약 체결 시점과 후속함 건조 물량 배분이 다음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축적된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사업 정상화와 적기 전력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영업이익 N%’ 확산... 연봉 상한 등 쟁점

▶▶ 1면 ‘삼성 계열사 성과급’서 계속

삼성SDI가 올 1분기 영업손실을 전년 동기 대비 64.2% 줄인 1556억원까지 축소하고 하반기 분기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실적 반등과 맞물려 보상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업이익N%’ 방식은 2021년 SK하이닉스가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변경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상한 폐지로 이어졌다. 삼성전기도 지난 5월 반도체(DS)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상한 없이 신설했다. 삼성SDS는 현금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자사주로 지급하는 개편안 찬반투표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별 요구 수위와 상한선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는 하반기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삼성전기 준중노조는 영업이익의 12~15%를 요구하며 노사협의 회 주도의 기준 결정에 반발해 왔다. 특히 상한을 폐지한 SK하이닉스나 상한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삼성전자와 달리 삼성전기는 연봉 50% 상한이 유지돼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성과급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롤이 된다”며 “직원 몫 10% 안팎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까지 합치면 이익의 25%가량이 배분되는 셈이지만 비율 자체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가 직원과 주주뿐 아니라 협력사 등 공급망을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되는 이윤배분의 원칙과 제도적 체계를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